

4 에조치부터 홋카이도로

가이타쿠시 삿포로 본청사

메이지 신정부는 홋카이도의 개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869(메이지 2)년에 가이타쿠시라고 하는 관공서를 설치했습니다. 가이타쿠시는 미국 등으로부터 서양의 새로운 기술이나 생활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혼슈와는 기후나 풍토가 다른 홋카이도의 개척을 시도했습니다. 서양의 건축 스타일로 지어진 “가이타쿠시 삿포로 본청사”는 바로 그런 홋카이도 개척의 시작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에도 막부는 “쇄국”이라는 명목 아래 무역 상대를 네덜란드와 중국으로 한정하여 무역항도 나가사키 한 곳만 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순, 미국이나 러시아 등이 자유로운 무역을 요구하면서 몇 군데의 항구도시를 무역항으로서 개항합니다. 그중 하나에 하코다테가 선택되었습니다. 에도막부는 하코다테 부교쇼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하코다테와 그 주변, 그리고 에조치를 마쓰마에번으로부터 빼앗고 직접 지배하면서 에조치의 개척을 시도했습니다. 1867(케이오 3)년,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정권을 천황에게 반환하면서 에도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메이지 신정부는 1869(메이지 2)년 7월에 가이타쿠시라고 하는 관공서를 설치하여 8월에 지명을 에조치부터 홋카이도로 바꾸면서 홋카이도의 개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에 대한 위기감과 다양한 산업을 번창하게 하여 풍부한 일본을 이룩한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가이타쿠시 시대부터 홋카이도청 시대로 정부에 의한 개척 정책이 진행되면서 홋카이도에는 혼슈 등으로부터 많은 이주자가 옮겨왔습니다. 혼자서 옮겨온 사람, 마을 전체가 옮겨온 경우 등 이주의 규모도 다양했습니다. 궁핍함이나 재해 때문에 그때까지 살던 땅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신천지에서의 풍부한 삶을 꿈에 그린 사람들 등, 이주를 결심한 이유도 사람마다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손에 넣어도 논과 밭을 꾸리기 위해서는 울창한 삼림을 개간해야 했으며, 새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 앞에는 상상도 못 하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척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이누 민족은 그때까지의 생활 문화가 “야만”하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사슴 사냥이나 연어잡이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그때까지 살던 땅으로부터 강제로 퇴출당하는 등 아이누 민족은 수많은 고뇌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1899(메이지 32)년에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와진과 똑같은 생활 양식을 와진의 사정으로 강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은 아이누 민족의 고초를 진정한 뜻에서 해결하는 법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코다테 개항과 아이누 민족

하코다테 개항을 하기 조금 전, 1855년 2월(안센이 원년 12월)에 체결된 러일 화친 조약 체결로 쿠릴 열도의 국경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사할린에 대해서는 애매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됩니다. 사할린에 진출하기 시작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에도막부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에조치를 개척하는 것으로 그 방비도 굳히려고 했습니다. 에도막부는 다양한 산업 개발을 시도하고 에조치에의 와진의 정주를 재촉합니다. 아이누 민족에게는 머리 모양이나 이름 등을 와진과 똑같이 바꾸게 하는 등 “일본식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다양한 이주자 — 둔전병

메이지 정부는 홋카이도의 개척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지역으로 여긴 지역에는 둔전병 마을을 설치했습니다. 둔전병의 역할에는 농업 개척 시행이라는 역할과 홋카이도를 지키기 위한 군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일차 둔전병은 1875(메이지 8)년 고토니(현재의 삿포로시)에 이주했습니다. 그 후, 둔전병 마을은 현재의 아사히카와시 등, 주로 내륙부로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1904(메이지 37)년에 제도가 끝날 때까지 일본 전국으로부터 7,337명(가족을 포함하면 약 4만 명)이 둔전병으로서 옮겨왔습니다.